

韓國의 運氣學에 關한 研究

¹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²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홍진임¹, 윤기령², 윤창열¹ *

A Study on Woongihak on Korea

Hong Jin-im¹, Yun Ki-ryoung², Yun Chang-yeol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²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Woongihak on Korea requires detailed study into its contents including each period's Woongihak theory and clinical practices.

Method : Woongihak is assumed to have been introduced during the Coreyo Dynasty. Then its development stage is divided into early, middle, later periods in Chosun dynasty, and the category further developed in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n the post-liberation era. These periods were given respect to while medical textx and data related to Woongihak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 & Conclusion :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Woongihak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early period of Coryeo Dynasty, but there was no text around this era regarding Woongihak could have been found. Woongihak was found in Uibang-yuchwi, which entered Chosun Dynastyin early period and was published, where it annotated Sanghanjiggyeog, Saminbang, and eumjeungyaglye. Donguibogam,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middle period, introduced Woongi by hosting a sentence of Cheonjiungi, and Chochanggyeol was published during the late period and brought the level of Woongihak in Korea a step further. Lectures on Diagram of Woongihakw as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ut it lacks uniqueness since it was a translation of Suwenrushiyunqilunao. Another book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was Oun yukgiUihakbogam by Cho Wonhui. It brought a heavy influence on the generations to come because it drew up prescriptions through the Gaegun and Gaeggi or Date of Birth of Date of impregnation. It was easy to use and highly potent. The author of this paper also collected about 55 types of Woongi texts publish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but there are sure to be many that is missing from the collection.

Key words : Woongi, Lectures on Diagram of Woongihak, Cho Wonhui, Chochanggyeol, Oun yukgi-Uihakbogam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E-mail : yoony@dj.u.co.kr, Tel : 042-280-2601.
Received(1 August 2017), Revised(12 August 2017),
Accepted(24 August 2017)

1. 緒論

우리 민족의 의학은 고조선 시대부터 독자적인 의료체계를 수립하여 면면히 계승되었으리라 사료되나 문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시의 의학정황은 알 수 없다. 운기의학은 중국에서 후한시대부터 발전되어 내려왔을 것으로 추측되나 왕빙 이전의 것들은 내용이 소략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운기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운기학의 발전 정황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왕빙은 당시에 전해졌던 『素問』의 板本에 錯誤가 많아 篇目이 중첩되고 앞뒤의 순서가 조리가 없으며 문장의 뜻이 連貫되지 않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펼쳐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여겨(世本緝繆하여 篇目重疊하고 前後不倫하며 文義懸隔하여 施行不易하고 披會亦難이라) 20여 년의 세월을 걸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였으며 이전부터 소실되었던 舊藏之卷(第七卷)을 補入하여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黃帝內經·素問』81篇 24卷을 완성하였다. 이때 補入한 내용이 『素問』의 運氣7篇 大論이고 이때가 唐나라 寶應 元年 壬寅年(762년)이다. 이후에도 300년간 運氣學說을 언급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송나라 嘉祐(1년 이 1056년)년간에 이른 후에 비로소 여러 의가들이 運氣學說을 언급하였고 1099년 劉溫舒가 『素問入式運氣論奧』를 著하여 오운육기를 전문적으로 논술하여 조정에 上모한 이후 이 학설은 世人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王安石의 變法 이후에는 運氣學說이 太醫局에서 의사를 뽑는 시험과목의 하나가 되어 宋代에는 운기학설이 대단히 성행하였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唐制를 모방하여 의학교육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素問』을 널리 보았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도 신라의 舊制를 답습하였고 의사를 선발하던 시험인 醫業式에서 『素問』을 중시하였으므로 오운육기를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되나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직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전기에 완성된 『醫方類聚』에 운기관련 내용이 散見되고 1455년에 주조된 乙亥字로 『素問入式運氣論奧』가 간행되어 운기학설이 널리 전파되었으리라 사료된다.

『東醫寶鑑』에서「天地運氣」條를 두어 운기의론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론은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취하였고 처방은 『三因方』에서 인용하였다.

英, 正祖 때의 運氣醫家인 尹東里는 『草窓訣』을 지어 운기를 임상에 活用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후 한국의 한의학에 至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8년에 金海秀는 『圖解運氣學講義』를 지었고 趙元熙는 1938년 『五運六氣醫學寶鑑』을 편찬하여 운기를 임상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五運六氣醫學寶鑑』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運氣七篇의 번역서, 운기를 활용한 다양한 체질감별 및 치료서, 중국 또는 일본에서 간행된 운기서적을 번역한 책들도 출판되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운기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운기학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조선시대 이전까지 운기학의 정황

고조선 이후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의학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문헌으로 전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高구려 平原王 3년(서기 561년) 吳人 知聰이 『內外典』, 『藥書』, 『明堂圖』 등 164卷을 가지고 高구려를 거쳐 日本에 귀화하였다¹⁾는 기록을 통해 한국의 의학은 중국으로부터 의서를 수입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여기에 언급된 『內外典』에 『黃帝內經』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王氷이 운기를 보입 하기 전의 8卷本 일 것이므로 운기관련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왕빙은 서기 762년 『素問』속에 運氣를 보입 하였으니 운기의학은 실제로 이 뒤로부터 흥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三國史記·職官志』에 “孝昭王 元年(692년)에 처음으로 의학교(醫學學校)를 두어 學生들을 敎授하였는데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을 課程으로 하였다. 博士가 二人이었다.” 라고 하는 의학교육에 관한 職制가 적혀 있다²⁾. 이것은 대체로 唐의 의학

1)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30.

교육 제도를 옮겨온 것으로 이때의 『素問』도 王氷이 운기를 보입하기 이전임으로 역시 運氣의 내용이 빠진 8卷本 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고려는 건국 초기에 唐制를 기초로 한 新羅의 舊制를 답습하였다.

光宗 때에 과거제도를 실시하면서 醫業에 대한 과거도 同時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考試에 채용된 教科書目은 신라시대 때의 교육기관인 醫學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던 『素問』, 『甲乙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針經』, 『難經』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 이때의 『素問』은 왕빙이 운기를 보입 한 지 2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임으로 운기가 포함된 9卷本 『素問』일 가능성이 큼으로 늦어도 고려초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운기의학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그 후 成宗 初에 이르러 12牧에 醫學博士 각 1人을 파견하여 학생들을 教授케 한 내용이 보이는데⁴⁾ 이로 보건대 『黃帝內經』이 고려 초기에 醫官들 사이에 보편화되었으리라 사료된다.

특히 北宋 哲宗 元祐 8년(1093년)에 고려에서 올린 『針經』의 내용이 훌륭하다 하여 다시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까지 하였다. 이로 보더라도 통일신라 때부터 善本의 『黃帝內經』이 고려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송과 고려는 교류가 대단히 활발하여 顯宗 8년(1017년), 송나라 眞宗은 『太平聖惠方』을 보내주었고 顯宗 13년에도 韓祚가 송나라로부터 돌아올 때 本書를 보내주어 이 책은 정식으로 2차례나 고려에 輸入되었다⁵⁾. 그러나 『太平聖惠方』은 宋나라 초기 983년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992년에 완성된 책으로 運氣學說이 송나라에서 流行하기 전의 책임으로 운기와 관련된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

宋나라는 運氣를 대단히 중요시하여 醫師 取才 考試에 運氣가 하나의 과목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으니 송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던 고려에 운기와 관련

된 서적 등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되나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 光宗 10년에 처음 실시된 科擧制度가 仁宗 14년에 이르러 考試의 방법을 醫業式, 呪禁式으로 나뉘고 醫業式의 8과목 중에서 『素問經』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데⁶⁾ 이를 보더라도 고려의 醫師들 사이에 運氣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三木榮도 고려시대 후기 유학이 발흥하면서 오운육기설이 한반도에 널리 유행했으리라 추측되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당시의 의사들이 『素問』을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에 운기이론이 실려 있으므로 고려시대 후기에는 오운육기설을 崇奉했으리라 생각된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필자가 검색해본 결과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運氣와 관련된 용어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3. 조선시대의 운기학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을 편의상 『醫方類聚』가 간행되는 전기, 『東醫實鑑』이 간행된 중기, 그리고 『草窓訣』이 편찬되는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조선 전기의 운기학

조선 전기의 醫書 중에서 오운육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은 『醫方類聚』이다. 『醫方類聚』에서 인용한 서적을 중심으로 운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傷寒直格의 運氣引用

『醫方類聚』卷37에서는 『傷寒直格』을 인용하여 10干이 夫婦配合하여 5運을 이루는 내용을 위시하여 운기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⁸⁾.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己가 合하여 土運을 이루고 乙庚이 合하여 金運을 이루고 丁壬이 合하여 木運을 이루고 丙辛이

2) 李丙燾譯註. 三國史記(下). 서울. 乙酉文化社. 1985. p.255.

3)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13.

4)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14.

5)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18.

6)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78.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日本.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99.

8) 世宗命撰. 醫方類聚(3).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524~525.

합하여 水運을 이루고 戊癸가 합하여 火運을 이룬다고 하였고, 甲己가 陰陽配合할때 甲剛木이 己柔土를 克하여 夫婦를 이루어 土運을 이룬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5운의 太過不及, 天符, 歲會, 同天符, 同歲會, 天刑, 干德符 등을 설명하였고 12支가 六氣, 三陰三陽에 應하여 子午가 少陰君火가 되고 丑未가 太陰濕土가 되고 寅申이 少陽相火가 되고 卯酉가 陽明燥金이 되고 辰戌이 太陽寒水가 되고 巳亥가 厥陰風木이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寅申巳亥의 四孟月은 風火의 陽이 되고 先이 되어 主虛無하고 變化가 輕淸하며 未甚爲少하고 子午卯酉의 四仲月은 燥熱이 되고 각각 中을 얻었기 때문에 居中而平하고 辰戌丑未의 四季月은 寒濕의 陰이 되고 後가 되어 主形體하고 肅靜하며 變化가 已甚而爲多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五運은 五藏主病에 應한다고 하면서 諸風掉眩 皆屬肝木, 諸痛痒瘡瘍, 皆屬心火, 諸濕腫滿 皆屬脾土, 諸寒收引 皆屬腎水, 諸氣臑鬱病痿 皆屬肺金 한다 하였다. 이어서 六氣爲病에서 病機十九條의 내용과 기타의 증상을 열거하고 厥陰風木은 肝膽之氣이고 少陰君火는 眞心小腸之氣이고 太陰濕土는 脾與胃之氣이고 少陽相火는 心包絡三焦之氣이고 陽明燥金은 肺與大腸之氣이고 太陽寒水는 腎與膀胱之氣라고 하였다.

(2) 三因方の 運氣引用

『醫方類聚』卷53에는 『三因方』을 인용하여 운기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⁹⁾. 지금의 『三因方』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三因方』卷之四의 중간인 五運論부터 卷之四가 끝나는 六氣凡例까지 모두를 인용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내용이 『五運論』이다. 번역문과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운육기는 천지의 음양기운이 운행하고 승강하는 일반 법칙이다. 오운의 유행에는 태과불급의 차이가 있고 육기의 승강에는 逆從과 勝復의 차이가 있다. 덕화정령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재앙이 있으니 모두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경에

서 “六經의 氣血이 요동하여 不安하고 五藏之氣가 치우쳐서 不調하며 五氣의 太過不及에 따라 다른 기운을 勝하거나 다른 기운의 疢법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기후의 변화에 사람이 응한다는 것이다. 혹 災變을 만나면 재앙과 병이 생기니 抑鬱되었던 것이 폭발하면 참되고 정상적인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상기후가 작용하면 꺾여 지고 뒤집히게 된다. 이때 사람의 臟氣의 허실에 따라 병이 생기는 것을 時氣라고 하니 邪氣를 감축하여 병이 든 것과 유행성 疫疹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과거의 哲人들이 천지의 유여, 부족하고 어긋난 기운을 알아 또한 天地에서 생한 五味로써 고르게 다스렸으니 내경에 자세하다.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 없어 질까 두려워 서술하여 기록한다. (夫五運六氣는 乃天地陰陽이 運行升降之常道也라 五運流行은 有太過不及之異하고 六氣升降은 則有逆從勝復之差라 凡不合於德化政令者는 則爲變眚하니 皆能病人이라 故로 經云 六經波蕩하고 五氣傾移하며 太過不及에 專勝兼并이라하니 所謂治化에 人應之也라 或遇變眚하면 聿興災疹하니 因鬱發以亂其眞常하고 不德而致折復이라 隨人臟氣虛實而爲病者를 謂之時氣니 與夫感冒中傷과 天行疫疹은 顯然不同이라 前哲이 知夫天地有餘不足違戾之氣하야 還以天地所生德味而平治之하니 經論昭然이라 人鮮留意하야 恐成湮沒故로 叙而紀之하노라.)

다음의 내용이 「五運時氣民病證治」이다. 十干에 따라 五運의 太過不及을 나열하고 증상 및 처방, 처방의 主治證, 처방내용, 복용법을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에 있는 壬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凡遇六壬年은 發生之紀라 歲木太過하면 風氣流行하야 脾土受邪라 民病飡洩하며 食減體重하며 煩冤腸鳴하며 脇支滿하며 甚則忽怒善怒하며 眩冒癲疾이라 爲金所復하면 則反脇痛而吐하며 甚則衝陽絕者는 死라.

苓朮湯

治脾胃感風하야 飡洩注下하며 腸鳴腹滿하며 四肢重滯하며 忽怒善怒하며 眩冒顛暈하며 或左脇偏疼이라.

白茯苓 厚朴(薑汁製炒) 白朮 青皮 乾薑(炮)

9) 世宗命撰. 醫方類聚(4).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648~656.

半夏(湯泡去滑) 草果(去皮) 甘草(炙) 各等分

右剉散. 每服四錢, 水盞半, 姜三片, 棗兩枚, 煎七分, 去滓, 食前服之(永類鈴方同).

이어서 六戊年の 赫曦之紀에는 麥門冬湯, 六甲年の 敦阜之紀에는 附子山茱萸湯, 六庚年の 堅成之紀에는 牛膝木瓜湯, 六丙年の 流衍之紀에는 川連茯苓湯, 六丁年の 委和之紀에는 菴蓉牛膝湯, 六癸年の 伏明之紀에는 黃芪茯神湯, 六己年の 卑監之紀에는 白朮厚朴湯, 六乙年の 從革之紀에는 紫菀湯, 六辛年の 涸流之紀에는 五味子湯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서 壬戌甲庚丙의 해는 木火土金水가 태과하고 丁癸己乙辛의 해는 木火土金水가 不及함으로 치료할 때 五味所勝으로 調和하여 平衡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모든 처방에서 『永類鈴方』과 같다고 하고 附子山茱萸湯에서 肉苳菴 各 7錢 5分을 『永類鈴方』에서는 3兩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川連茯苓湯이 『永類鈴方』에는 黃連茯苓湯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永類鈴方』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永類鈴方』은 李仲南이 지은 책으로 元나라 至順二年(1331년) 간행되었으며 『濟生方』, 『太平聖惠方』, 『三因方』등 12部의 의서를 인용하여 완성하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醫方類聚』를 편찬할 때 하나의 책만을 옮겨서 종합한 것이 아니라 처방 하나까지도 여러 책을 참고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六氣敍論」이 있고「本氣論」이 있는데「本氣論」에서는 主氣의 6步를 기술하고 있다.

다음에「六氣時行民病證治」이다. 먼저 “辰戌之歲, 太陽司天, 太陰在泉, 氣化運行先天”이라 하고 “初之氣, 乃少陽相火, 加臨厥陰風木, 民病癘, 身熱, 頭疼, 嘔吐, 肌腠瘡瘍”이라 하였으며 같은 형식으로 二之氣에서 終之氣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서 “用甘溫以平水하고 酸苦以補火하여 抑其運氣하고 扶其不勝이라” 하여 五味로 調治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靜順湯의 처방이 나오고 主治證을 나열하였으며 처방 내용과 복용법, 加減法이 기술되어 있

다. 처방부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靜順湯

治辰戌歲太陽司天하고 太陰在泉하야 病身熱, 頭痛하며 嘔吐氣鬱하며 中滿, 膈悶하여 少氣足痿하며 注下赤白하며 肌腠瘡瘍하야 發爲癰疽라.

白茯苓 木瓜乾 各一兩 附子(炮去皮臍) 牛膝(酒浸) 各三分○永類鈴方三兩 防風(去叉) 訶子(炮去核) 甘草(炙) 乾姜(炮) 各半兩

右爲剉散하야 每服四大錢이라 水盞半에 煎七分하야 去滓하고 食前服이라 其年에 自大寒至春分은 宜去附子하고 加枸杞半兩하며 自春分至小滿은 依前入附子枸杞하며 自小滿至大暑은 去附子 木瓜 乾姜하고 加人參 枸杞 地榆 香白芷 生姜 各三分하며 自大暑至秋分은 依正方호대 加石榴皮半兩하며 自秋分至小雪은 依正方하야 自小雪至大寒은 去牛膝하고 加當歸 芍藥 阿膠炒 各三分이라.

이어서 卯酉之歲에서부터 巳亥之歲까지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매 해에 쓰는 처방만 살펴보면 卯酉之歲에는 審平湯, 寅申之歲에는 升明湯, 丑未之歲에는 備化湯, 子午之歲에는 正陽湯, 巳亥之歲에는 敷和湯을 쓴다고 하였으며 역시 『永類鈴方』과 비교한 내용이 있다.

위 처방의 명칭은 五運의 三五分에서 木의 平氣를 敷和, 火의 平氣를 升明, 土의 平氣를 備化, 金의 平氣를 審平, 水의 平氣를 靜順이라 한 것에서 가져다 쓴 것이다.

끝으로「六氣凡例」가 있는데 “司氣以熱하면 用熱無犯하고 司氣以寒하면 用寒無犯하고 司氣以涼하면 用涼無犯하고 司氣以溫하면 用溫無犯이라.(주제하는 기운이 熱하면 熱한 약을 쓰지 말라. 이하생략)” 등 六氣와 관련된 일반적인 치료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3) 陰證略例의 운기인용

『醫方類聚』에는 운기관련 내용이 하나 더 있다. 卷61에는 『陰證略例』의 내용을 인용하여 王海藏이

지는 神朮湯과 白朮湯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神朮湯을 六氣에 따라 加減하는 例가 실려 있다¹⁰⁾. 神朮湯은 ‘中飲冷하고 外感寒邪하여 無汗者’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蒼朮, 防風 各 2兩, 甘草 1兩으로 구성되어 있고 生姜水에 葱白 三寸을 넣어 달여 마신다고 하였다.

이 때 太陽寒水가 司天하면 桂枝, 羌活을 加하고 陽明燥金이 司天하면 白芷, 升麻를 加하고 少陽相火가 司天하면 黃芩, 地黃을 加하고 太陰濕土가 司天하면 白朮, 藁本을 加하고 少陰君火가 司天하면 細辛, 獨活을 加하고 厥陰風木이 司天하면 川芎, 防風을 加한다고 하였다.

(4) 조선 전기의 기타 운기관련 내용

끝으로 하나 언급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에 다양한 中國醫書들을 간행하였는데 운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기관련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¹⁾.

단종 3년(1455년) 4월에 元나라 때 李仲南이 지은 『永類鈴方』을 간행하였는데 이 속에는 앞에서 살펴봐왔듯이 南宋 때 陳無擇이 지은 『三因方』 속의 운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世祖 6년(1460년) 10월에 乙亥字本으로 『黃帝素問』을 간행하였는데 이 속에는 運氣七篇大論이 補入되어 있다.

三木築은 『朝鮮醫書誌』에서 간행년도는 알 수 없지만 乙亥字本으로 宋나라 劉溫舒가 지은 『素問入式運氣論奧』가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乙亥字는 1455년(세조 1년) 명필가 姜希顔의 書體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금속활자이며 임진왜란 전까지 146종의 서적을 찍어냈다고 한다.

2) 조선 중기의 운기학

(1) 東醫寶鑑

『東醫寶鑑-雜病篇』卷一의「天地運氣」조에 운기와

10) 世宗命撰. 醫方類聚(5).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375~376.

11)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p.267~269.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서두에 ‘醫當識天地間運氣’라 하고 “內經曰 不知年之所加와 氣之盛衰와 虛實之所起면 不可以爲工矣라” 하고 王水이 “以爲天眞氣運도 尙未該通이온 人病之由를 安能精達이리오” 하여 의사는 반드시 運氣를 알아야 한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뒤이어 元會運世, 天地之形에서부터 十二支四時氣候까지는 운기의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보충 내용들이다. 이어서 主氣, 客氣, 五運, 南北政, 六氣承制, 五運之歲太過不及 등 운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주로 유은서가 쓴 『소문입식운기론』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조선시대 전기에 『소문입식운기론』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다음으로 『三因方』을 인용하여 天干에 따른 10개의 처방과 十二支 에 따른 6개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五運之歲太過不及의 내용에 대한 『三因方』과 『東醫寶鑑』의 서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陳無擇은 木火土金水가 太過한 해인 6壬, 6戊, 6甲, 6庚, 6丙年의 순서로 나열한 데 반해 許浚은 天干의 태과순서인 6甲, 6丙, 6戊, 6庚, 6壬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내용을 줄여서 요약하고 있다. 『醫方類聚』조에서 芩朮湯을 기술하였으므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를 소개한다.

六壬年發生之紀

歲木太過하면 風氣流行하여 脾土受邪라 民病飢洩하며 食減體重하며 煩冤腸鳴하며 脇痛支滿하니 宜芩朮湯이라.

이를 보면 『三因方』의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이후 9개의 증상과 芩朮湯의 7개 증상을 합하여 모두 16개의 증상을 4개로 줄여 서술하고 있다.

셋째, 처방을 용량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三因方』에서는 白茯苓, 厚朴, 白朮, 青皮, 乾薑炮, 半夏, 草果, 甘草를 各等分이라 하였는데 許浚은 各一錢이라 하였다. 『三因方』의 처방은 대부분 약재 하나가 一兩, 半兩 등이 들어가고 복용할 때 4錢씩

달여 먹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許浚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용량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六十歲運氣 主客及民病 내용에 대한 『三因方』과 『東醫寶鑑』의 서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三因方』은 辰戌之歲, 卯酉之歲, 寅申之歲, 丑未之歲, 子午之歲, 巳亥之歲로 기록하여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꺾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나 『동의보감』은 子午之歲, 丑未之歲, 寅申之歲, 卯酉之歲, 辰戌之歲, 巳亥之歲로 기술하여 子丑寅卯辰巳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둘째, 司天, 在泉, 氣化運行的 先後天,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의 客主加臨, 民病 등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동의보감』에서는 主客氣의 主時하는 기간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治法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셋째, 역시 약물의 用量을 달리하고 있으며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 6步에 따른 加減法을 생략하였다. 『東醫寶鑑』運氣條는 끝부분에서 『素問入式運氣論奧』에 있는 ‘六十年客氣旁通圖’를 인용하였고 마지막으로 ‘運氣之變成疫’條를 두고 『醫學綱目』에 있는 “一歲之中에 病證上同者는 五運六氣所爲之病也라”를 인용하였다. 이는 허준이 전염병의 유행에는 운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넣은 것으로 사료된다.

(2) 『新纂辟瘟方』과 『辟疫神方』의 운기내용

조선 광해군 4년(1612년, 壬子年) 함경도에 疫癘가 流行하여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다음해 봄에는 전국에 퍼지자 광해군은 허준에게 命하여 이에 대처하는 책을 짓게 하였다. 이에 허준은 『新纂辟瘟方』을 지어 올렸고 1613년(癸丑年) 12월 內醫院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은 첫 구절이 “火運之歲, 多疫癘”이고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¹²⁾

五運 가운데 戊癸는 火에 속하고 火에는 君火와 相火가 있다. 君火는 少陰이고 相火는 少陽이다. 少陰이 司天하면 天下에 전염병이 돌고 少陽이 司天하면 疫癘가 크게 유행한다. 丑未年에 少陰이 加臨하면 백성들에게 瘟疫이 盛行하여 원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리고 火運의 해에 熒惑星이 빛을 내면 天下에 전염병이 돈다.

丑未年에 少陰이 加臨한다는 것은 客氣의 二之氣가 少陰이 되어 主氣의 二之氣인 少陰에 加臨하여 少陰君火가 중첩한다는 뜻이다.

다음 구절은 ‘運氣之變成疫’이고 이하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실려 있다.

광해군 4년, 5년에 唐毒疫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자 王이 허준에게 명하여 또한 『辟疫神方』을 짓게 하였다. 서두의 唐毒疫에 대한 설명에서 이해(1613년, 癸丑年)에 罕世之酷疾이 유행하는 이유가 癸年은 火運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火運之歲多熱疾’條를 두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³⁾

천지간의 六氣는 戊癸의 해에는 火運이 司天하고 子午의 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하고 寅申의 해에는 少陽相火가 司天하니 이러한 해에는 흔히 痘, 癘, 疹의 3종류가 서로 섞여서 유행하고 대개 瘡瘍은 火에 속하니 모두 君相二火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허준이 『新纂辟瘟方』과 『辟疫神方』을 지은 광해군 4년과 5년은 4년이 壬子年이고 5년이 癸丑年이다. 壬子年에는 子午少陰君火가 司天을 하고 癸丑年은 戊癸化火하여 火運의 해가 됨으로 이 두 해는 火가 大運이 되고 君火가 司天함으로 운기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毒疫, 痘, 癘, 疹이 유행할 조건을 갖춘 해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준은 운기에 정통하였고 이것으로 전염병의 유행을 예측하였으며 치료에도 응용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동의보감』의 운기 내용은 『醫方類聚』의 『三因方

12)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25.

1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157~158.

』 내용을 계승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은 이후 『草窓訣』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 조선 후기의 윤기학

(1) 草窓訣

① 草窓訣의 저자 尹東里

『草窓訣』은 18세기의 醫家 尹東里(1705~1784)의 저서이다. 윤동리의 字는 子美이고, 號는 草窓이다. 肅宗 31년(1705년, 乙酉年) 正月 26일에 태어나 正祖 8년 甲辰年(1784년) 11월 10일까지 80세를 살았다.

윤동리는 파평윤씨 시조 莘達의 27세손이다. 莘達의 15세 坤이 제 2차 왕자의 난 때 李芳遠을 도와 佐命功臣에 올랐고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昭靖公의 시호를 받았다. 그 후 21세 暉의 후손들이 論山の 魯城에 세거한 이후 그들을 魯城尹氏라 부르며 학자집안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22세 昌世, 23세 焜, 24세 叔學, 25세 燾을 지나 26세 頤教(1680~1745)에 이르니 尹東里의 父이다. 頤教의 字는 養而, 號를 讀易齋라 했는데 學問과 德行이 있었다. 그의 동생이 雨教(1695~1737)이다. 雨教는 字는 時甫이고 號가 農村이다. 『草窓訣』의 用藥勸序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¹⁴⁾

“막내아버지 農村先生은 돌아가신 아버지 讀易齋先生에게 공부를 배웠고, 나는 農村선생에게서 공부를 배웠으니 우리 집안의 의학이 3세에 걸쳐 이어졌다.”

이를 보면 頤教이전은 유학을 주로 공부했고 의학의 시작은 윤동리의 부친인 頤教에게서 처음 시작되어 그의 季父를 거쳐 윤동리에게 이어진 듯하다.

② 草窓訣의 내용

『草窓訣』은 당시에 정식으로 出刊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10여 종류의 필사본만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주요한 것으로는 『草窓訣』, 『三里訣』, 『草堂遺訣』, 『艸函三里』, 『運氣衍論』, 『五運六氣篇』, 『運氣誌』 등의 異本이 전해지고 있다.

1980년에 漢城出版社에서 간행한 『草窓訣』을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草窓訣』은 크게 「運氣衍論」과 「用藥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運氣衍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五運合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윤동리의 독창적인 창안이고 그의 윤기의학의 중요이론이다. 五運合紀란 甲辛과 戊乙와 丙癸와 庚丁과 壬己가 합하여 一紀가 된다는 것이다. 一紀가 된다는 것은 2개의 천간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 동일한 병리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중 甲辛合紀의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己는 化土하여 모두 土가 되지만, 甲은 陽干임으로 土가 太過하다. 甲年生은 土가 太過하여 水를 克하기 때문에 脾盛腎衰한 체질을 타고난다. 그리고 丙辛은 化水하여 모두 水가 되지만 辛은 陰干임으로 水가 不及하다. 辛年生은 水가 不及하여 土의 克을 당하기 때문에 역시 脾盛腎衰한 체질이 된다. 따라서 甲과 辛의 두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脾盛腎衰, 脾濕太過하고 腎水不及한 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합하여 一紀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一紀(甲辛, 丙癸, 戊乙, 庚丁, 壬己)生人이 특정 一紀年을 만났을 때의 25가지 경우(甲辛生人 遇乙戊年病과 乙戊生人 遇甲辛年病은 병리기전이 相同함으로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실제로 15가지 경우가 된다.)에 대하여 병리기전과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과 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처방은 주로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을 활용하고 있으며 辨證論治를 위주로 하여 기계적으로 처방을 쓰지 않았으며 전체 내용을 보면 그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기술하여 대방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六氣相通 皆腑病”이라 하였고, 또 「용약권」에서 “五運五藏”이라 한 것으로 보아 五運은 五藏에, 六氣는 六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한 듯하다.

넷째, 子午少陰君火 同乙年 正陽湯,
丑未太陰濕土 同壬己年 備化湯,
寅申少陽相火 同丙癸年 升明湯,
卯酉陽明燥金 同戊年 審平湯,

14) 朴寅商論.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p.32.

辰戌太陽寒水 同甲辛年 靜順湯,

巳亥厥陰風木 同庚丁年 敷和湯 이라 하여 六氣司天의 해와 10天干의 상관성 그리고 治方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의 客氣變化에 따라 正方에 加味하는 약물을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처방과 加味하는 약물은 모두 진무택의 『三因方』에 있는 내용이고 用量은 『동의보감』을 따르고 있다. 또 正方 외에 代方을 소개하고 있는데 子午年의 代方은 十味導赤散, 丑未年의 代方은 不換金正氣散, 寅申年의 代方은 龍膽瀉肝湯, 卯酉年의 代方은 瀉白散, 辰戌年의 代方은 胃苓湯, 巳亥年의 代方은 荊防敗毒散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의 독창적인 주장이다.

「운기연론」의 끝에는 淡窩의 跋文이 붙어 있는데 淡窩는 홍계희(1703~ 1771)로 추정된다.

이어서「用藥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干에 따라 六甲年에는 附子山茱萸湯, 六辛年에는 五味子湯, 六戊年에는 麥門冬湯, 六乙年에는 紫菀湯, 六丙年에는 黃連茯苓湯, 六癸年에는 黃芪茯苓神湯, 六庚年에는 牛膝木瓜湯, 六丁年에는 菴蓉牛膝湯, 六壬年에는 苓朮湯, 六己年에는 白朮厚朴湯을 쓴다고 하였다. 이 역시 진무택의 『三因方』에 있는 처방이고 『東醫寶鑑』을 따라 용량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을 썼을 때 낫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쓰는 처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둘째, 雜錄에 관한 내용이다. 잡록은 하나의 처방을 썼을 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처방을 바꾸어 대처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잡록의 전체내용을 보면 특정 처방을 誤用했을 경우, 單方藥 또는 2종류 이상의 약을 誤用했을 경우,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한론』 이후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의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條文은 100여조가 넘는데, 임상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결코 기술할 수 없는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내용으로 임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五運合紀이론에 의해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로 분류한 아래에, 수십 개씩의 처방을 기술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활용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처방이 중복되어 기술된 것도 있는데 이는 五運合紀에 의해 체질을 고정시키지 않고 辨證論治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넷째, 六氣司天에 따라 10여개 전후의 처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子午年에는 正陽湯을 쓰고 十味導赤散을 代用한다고 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臟腑把守藥 조문을 두어 오장육부 각각의 風과 熱, 寒과 濕, 燥를 치료하는 약을 제시하였고 上行하고 下行하는 引經藥을 소개하고 있다.

『초창결』은 위대한 운기 의학자인 운동리의 평생의 임상경험이 집대성 되어있는 훌륭한 의서이다. 五運, 六氣에 따라 또 五運合紀 이론에 의해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운기를 임상에 活用한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서는 중국과 일본의 운기학 서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내용들이다.

(2) 正祖의 運氣에 대한 認識

三木榮은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서 英祖때 영의정을 지낸 崔奎瑞가 운기에 精通한 사람이었다¹⁵⁾고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文集인 『良齋集』을 조사해 보았으나 운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들은 운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三木榮은 이익, 안정복, 정약용 등이 顯宗, 戊申年(1668년)에 유행했던 麻疹의 원인을 運氣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⁶⁾ 戊申年은 대운이 火太過年이고 寅申少陽相火가 司天하여 운기학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1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日本.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378.

1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日本.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378.

『조선왕조실록』 중 「正祖實錄」 21권 정조 10년 (1786년, 丙午年) 4월22일의 기록을 보면, 正祖도 운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¹⁷⁾

임금이 말하기를, "요즈음 홍역이 한결같이 치성하니, 의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치료의 방법을 모를까 염려되어 방금 양의사(兩醫司)에 명하여 의원을 두고 약제를 준비하여 마음을 써 구제하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실효가 어떨지 모르겠다. 대체로 홍역의 발생은 전적으로 중운(中運)의 객기(客氣)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치료하는 방법도 한결같지 않은데, 증세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약을 쓰는 길도 따라서 다른 것이다. 예로부터 의원 중 의술에 정통한 사람들은 반드시 운기(運氣)를 우선으로 삼아 홍역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통행되는 처방을 만들어 후일의 사용에 대비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홍역이 이미 발생한 뒤에 세운(歲運)을 살피고 시후(時候)를 참작하여 하나의 처방을 만들어 내어 만백성들에게 돌려 보인자도 있었다. 올해의 홍역도 하나의 운기이니, 안팎에 의술을 업으로 삼은 술한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이러한 처방이 없고 이러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전 지신(知申)¹⁸⁾의 말이 물론 실정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나는 의견이 없지 않다고 본다. 지금 만약 성심으로 널리 찾아 증세에 맞는 통행의 좋은 처방을 얻어 과연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또한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니, 헤민서 제조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서울에 행세하는 의원들이 운기에 대해 꼭 잘 알지는 못할 것 입니다만, 넓은 사방에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고, 전의감 제조 정창성(鄭昌聖)이 말하기를, "영남은 본디 명의(名醫)가 많으니, 필시 이러한 처방에 유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헤민서 제조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호남의 관찰사로 있을 때에 보았는데, 의술을 업으로 삼은 자들이 대부분 운기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사

람들이 상당히 전해 익혔습니다. 지금 만약 널리 수 소문한다면 또한 시험해 볼 만한 좋은 처방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복원이 청하기를, "묘당에서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알리되, 사족(士族)이나 향품(鄕品), 그리고 고방(古方)·신방(新方)할 것 없이 운기에 정통하여 처방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경우 영읍(營邑)에 와서 바치면 그것을 경사(京司)에 올려 보내어 잘 만들어서 중외에 두루 시행할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선비로서 의술을 업으로 삼은 자에게 두루 알리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감추고 있는 처방을 스스로 와서 보고하기 어려울 것인데, 만일 가로막아 알리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 조정에서 우리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자문하는 본의가 심히 아니다. 옛날에 파문혀 있는 서적을 구하면서 벼슬을 제수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을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처방이 있어 뚜렷한 공효가 있을 경우 그 공로가 어찌 파문혀 있는 서적을 바친 것과 비할 수 있겠는가? (上曰: "近日疹疫, 一向熾盛, 爲慮醫藥之失宜, 診治之味方, 纔命兩醫司, 置醫設藥, 着意拯濟, 未知將來實效之如何, 而大抵疹疫之作, 專由中運之客氣, 其所治療之方不一, 症情既殊, 藥路隨異. 從古醫人之精通術業者, 必以運氣爲先, 疹疫未出之前, 預作通行之方, 以備後日之用者有之. 疹疫已出之後, 察其歲運, 參以時候, 拈出一方, 輪示萬民者有之. 今年疹疫, 亦一運氣. 中外之許多業醫者, 何獨無此等之方, 此等之人哉? 前知申之言, 固似迂闊, 予則曰不無意見. 今若誠心廣求, 得對症之通行良方, 果有普濟群生之效, 則不亦大幸?" 惠民署提調李福源曰: "京裏行世之醫, 運氣未必曉解, 四方之廣, 豈無其人乎?" 典醫監提調鄭昌聖曰: "嶺南, 素多名醫, 必有留意於此等方文者矣." 惠民署提調徐有隣曰: "臣曾按湖南時見之, 則業醫者多主運氣, 人頗傳習. 今若廣加搜問, 則亦似有合試之良方矣." 李福源請自廟堂, 行會於兩道道臣, 無論士族鄕品與古方、新方, 如有精通運氣, 搆出方文之人, 則使之來呈營邑, 轉上京司, 以爲爛加裁擇, 遍施中外之地." 從之. 教曰: "令廟堂, 遍諭京外儒士之業醫者, 恥其自銜胥靡之藏方者, 難於來告, 若有闕而未達之弊, 甚非朝家爲

17) 조선왕조실록 [검색일자 2017.06.29]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004022_002

18) 승정원의 도승지

吾民勤諮之本意。古有求逸書除官之事，苟獲壽民良方，行之有灼然之效，其功豈比逸書之來獻乎?”)

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가 홍역(麻疹)이나 전염병의 유행이 운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문에서 “疹疫之作은 專由中運之客氣라”하여 문장이 어색하지만(中運之客氣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中運之與客氣의 뜻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中運과 司天之氣에 의해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丙午年은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하여 전염병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해이다.

둘째, 의술에 정통한 사람은 運氣를 중시하여 전염병이 돌기 전에 미리 통치방을 만들어 뒷날 쓸 것을 대비하였고 전염병이 돌면 운기를 살펴 처방을 내어 백성들에게 제시하였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셋째, 지금 홍역이 창궐하는 것은 運氣에 의한 것이니 의사 중에서 처방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보라고 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운기에 정통하여 처방을 낸 사람을 찾아서 그 처방을 서울로 보내 이를 수정하여(爛加裁擇) 서울과 지방에서 널리 시행케 하기를 청하자 정조가 이를 따르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조가 운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운기학

1) 金海秀의 『圖解運氣學講義錄』

金海秀(1885~?)는 號가 又松이고 본관은 光山이다. 『圖解運氣學講義錄』은 1928년에 간행되었고 이외에도 『醫方大要』, 『萬病萬藥』, 『大東醫鑑』 등 많은 저서가 있다.

그는 『圖解運氣學講義錄』의 序文에서 “夫欲入醫學之門者는 先當識天地運氣라” 하여 운기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寒暑燥濕風은 共主乎一歲之內하고 生長化收藏은 咸備乎萬物之中하니 非祇一歲라 雖一時一刻之短이라도 而五運之機가 莫不存焉하며 非特一物이라 雖一毫一芒之細라도 而六氣之化가 莫不載焉이라.” 하여 五運과 六氣가 作用하지 않는

때가 없고 적용되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하였다¹⁹⁾.

그가 지은 『圖解運氣學講義錄』은 실은 宋나라 때 劉慄舒가 지은 『素問入式運氣論奧』를 번역해 놓은 책이다. 서문의 다음에 있는 五運六氣樞要之圖, 六十年紀運圖, 十干起運訣, 十二支司天訣도 모두 『素問入式運氣論奧』의 서두에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論五行生死順逆과 并圖부터 論治法까지의 모든 내용이 『素問入式運氣論奧』의 내용이다. 다만 論南北政并圖 다음의 論南北政脉과 끝의 論六元正紀, 論三因五運藥名, 論六十歲主客氣及民病的 3단락은 본인이 편집하여 추가한 것이다. 論南北政脉은 『素門·至眞要大論』에서, 論六元正紀는 『素門·六元正紀大論』에서 抄錄하였고 論三因五運藥名과 論六十歲主客氣及民病은 『三因方』을 인용한 『東醫寶鑑』의 내용을 가지고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독창적인 내용은 없다.

2) 趙元熙의 『五運六氣醫學寶鑑』

趙元熙의 生涯와 인적상황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柳春馨은 『五運六氣醫學寶鑑』序에서 ‘神穹哲學醫藥博士 趙元熙先生’이라 하였고 『五運六氣醫學寶鑑』跋에서 趙元熙는 자신이 ‘薦選爲軍籍典醫’라고 하였다. 『韓國醫藥人名事典』에서는 “趙元熙(1900?~) 醫學士. 前軍醫六等이 있으며 自跋을 붙여 36년 五運六氣運氣寶鑑을 印出했다”²⁰⁾고 하였고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2』에서는

“조원희 趙元熙 ?

住所: 全北 全州郡 龍進面

1923.4.5 醫生免許 登錄 6980番

1923.4.5 免許期限(-1926.4.4)

免許地域: 龍進面 一圓 이라 하였다.²¹⁾

『일제강점기 의생 목록』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은 永年醫生(갱신이 필요 없는 영구면허를 받

19) 金海秀. 圖解運氣學講義錄. 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p.1.

20) 류희영, 맹용재, 신민교.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1. p.98.

21) 박훈평 편저.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2. 대전. 한의학연구원. 2017. p.274.

은 의생) 목록이고 2, 3은 限年醫生(5년 이내의 갱신 기한을 정하여 면허를 받은 의생)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원희는 의생목록 2에 기록되어 있고 면허기간은 1923.4.5~1926.4.4 이었다. 그러나 限年醫生 면허를 받은 趙元熙가 『五運六氣醫學寶鑑』의 저자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五運六氣醫學寶鑑』의 초간본의 명칭은 『五運六氣醫學寶鑑乾坤釋義合部』이고 昭和 13년(1938년) 경남 南海郡 南海面에 있는 南鮮藥業株式會社에서發行되었다. 『五運六氣醫學寶鑑』은 크게 이론과 運氣方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부분은 晦宇 柳春馨의 序를 이어서 天地運氣, 運氣應候, 五運節候, 六氣節候, 人身小天地, 診脈 등으로 이어진다. 이론 부분의 주요내용은 主運, 主氣, 客運, 客氣의 파악과 더불어 入胎日을 추산하는 것이다.

『五運六氣醫學寶鑑』은 入胎日의 四柱를 生天이라고 出生日의 四柱를 後天이라 하는데 先天과 後天의 客運, 客氣를 파악하면 해당되는 처방이 결정된다. 처방의 내용이 실려 있는 부분이 運氣方藥이다. 運氣方藥은 乾坤으로 되어 있는데 乾이 甲子부터 丁亥까지 24년이고 坤이 戊子부터 癸亥까지 36년이다. 甲子條를 보면 다시 初, 中으로 나뉘는데 初는 客運, 客氣의 순서가 일치하는 初初, 二二, 三三, 四四, 五五를 의미하고 中은 客運과 客氣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初二, 二三, 三四, 四五, 五六을 의미한다. 初와 中에는 각각 통치방이 있으니 甲子年生의 初에는 加味附子山茱萸湯을 쓰고 中에는 復元湯을 쓴다. 따라서 마지막 癸亥년까지 각각 60개의 통치방이 있어 모두 120개의 처방이 기술되어 있다(이 책에서는 初에 쓰는 처방을 天干藥, 中에 쓰는 처방은 中元藥이라고 칭하였다.). 다음으로 매년마다 初初, 二二, 三三, 四四, 五五와 初二, 二三, 三四, 四五, 五六에 사용하는 10개의 처방이 있어 60년에 걸쳐 모두 600개의 처방이 실려 있다(부분적으로 天干藥 혹은 中元藥의 기본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600개에 못 미친다.). 다음은 別錄으로 이어진다. 別錄의 머리말을 보면 “만약 해당되는 처방에 따라 치료했으나 혹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몸조리를 잘 못했다면 첨부한 별방

4, 5種을 모든 약에 함께 복용하여 약탕물에 삼키면 길이 시원하게 효과를 보게 된다.(萬若依方治療나 或差支失攝하면 則添附別方四五種을 凡藥連服하야 湯水吞下하면 則永見快效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牡筋丸, 萬病丸, 續嗣壯元丹, 射香清心丸, 千金散의 주치증을 나열하여 이 五種藥을 앞의 藏腑藥을 먹을 때 달인 물에 함께 먹으면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添附別方은 牡筋丸 등 5種 處方과 萬能膏의 藥材와 용량이 기술되어 있고 이어서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手, 足의 外形을 치료하는 처방 55種을 기술하였다. 이는 運氣處方의 不足한 면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인체 外形의 명칭을 표시한 2개의 그림이 있고 인체의 血脈循環을 나타내는 循環圖가 있으며 저자가 1936년에 쓴 『五運六氣醫學寶鑑』의 발문이 있다.

篇을 달리하여 『五運六氣醫學寶鑑追增釋義』가 첨부되어 있다. 앞부분의 내용은 이론부분의 부족을 보충하고 있고, 또한 五運用藥法을 두어 甲生에서부터 癸生까지 병리기전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六氣節候用藥法을 두어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할 때 쓰는 敷和湯

寅申少陽相火가 司天할 때 쓰는 升明湯

辰戌太陽寒水가 司天할 때 쓰는 靜順湯

丑未太陰濕土가 司天할 때 쓰는 備化湯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할 때 쓰는 正陽湯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할 때 쓰는 審平湯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三因方』의 처방으로 『동의보감』과 『草窓訣』의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이어서 補寫在味隨時換氣藥을 두어 五臟六腑 각각 補, 寫, 溫, 涼하는 약물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醫學寶鑑追增釋義后小叙가 있는데 그는 여기서 “세상에 혹 한문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스스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많은 생명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쫓아 생각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世或文義淺劣者가 自覺不得하면 則濟衆生命上에 障

得多大故로 追思功近易知處하야 輯至一編이라)고 하여 저자의 의사로서의 仁心을 드러내고 있다.

『五運六氣醫學寶鑑』은 활용이 간편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 이후 한국의 한의학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5. 해방 이후의 운기학

1945년 해방 이후 다양한 운기서적들이 출판되고 시중에서 유행하였다. 이를 조원희의 『五運六氣

醫學寶鑑』類를 계승한 서적과, 『황제내경-운기편』을 해설한 서적, 중국과 일본의 운기서적을 번역한 서적 그리고 上記 이외의 운기학 서적 등으로 분류하여 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下記의 서적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고,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것인데 빠진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五運六氣醫學寶鑑』類의 운기서적

Table 1. Books of Woongi similar to the type of Ounyuksi-Uihakbogam.

순서	서명	저자	출판지 및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神受秘傳 隔簾診線訣	李義泰	서울. 행림서원	1957	
2	五運六氣漢醫學寶鑑	天安漢醫師會 編輯 吳大泳序	大田. 右文堂印刷社	1964	
3	秘方五運六氣作名法 附五運六氣漢醫學寶鑑	鄭濬	서울. 瞻星臺作名院	1969	주된 내용이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이고 오운육기의 학보감의 내용이다.
4	運氣學 處方選 二卷 中其一	東醫體質分類學會 編	서울. 創醫社	1971	
5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	金于齋 編著	서울. 명문당	1972	
6	東醫運氣寶鑑(附運氣體質病症速見表)				동의운기보감은 조원희의 오운육기의학보감의 내용이고 운기체질병증속견표는 崔虎錫著이다.
7	運氣要訣	大韓運氣學會編			崔虎錫이 編한 것이다. 운기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운기요결, 소문입식운기론오, 초창결, 오운육기의학보감을 合編한 책이다.
8	現代五運六氣學				오운육기의학보감의 내용이다.
9	五運六氣漢醫學界萬年寶鑑, 全	田容熏 編著	서울. 世進出版社	1976	
10	運氣演繹方藥篇	老佛 著	서울. 癸丑文化社	1978	
11	五運六氣經驗處方	許允 著	釜山. 三和文化	1988	

			印刷社		
12	五運六氣處方學	崔盛植 編	서울. 東洋書籍	1989	
13	五運六氣陰陽五行通變處方	金成浩, 朴興浦 編著	서울. 南山堂	1993	
14	五運六氣漢藥處方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4	
15	五運六氣 핸드북: [체질감정 만세력표 도해정리]	鄭圭鍊	서울. 에드텍	1995	
16	運氣醫學 : 운기의학의 임상적 응용과 오행체질해설	朴英培, 金泰熙 [共] 編著	성남. 정보사	2005	
17	章溪口錄			2008	
18	運氣醫學 : 초창결·운기보감해설 및 오행체질	김태희, 진승희 공저	성남. 정보사	2011	2005년 초판발행 2011년 개정판 발행
19	오운육기의학보감	趙元熙 原著, 金長生 編著	서울. 청홍	2014	초간본 오운육기의학보감을 영인하여 실어 놓았다.

2) 『황제내경·운기편』을 해설한 서적

Table 2. Books explaining Hwangjenaegyong · Ungipyeon.

순서	서명	저자	출판지 및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黃帝內經運氣解釋	白允基 譯	서울. 高文社	1974	
2	內經運氣學正解	姜鎭春, 金弘起 共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3	再編黃帝內經運氣類	田溶敏	서울. 大星文化社	1998	
4	內經運氣七篇精解. 五運六氣論	김장민, 권용수 [공]편역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2002	
5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王冰 編, 高保衡, 林億 共校整 朴贊國 譯註	파주. 집문당	2009	

3) 중국 또는 일본의 운기서적을 번역한 서적

Table 3. Books translating Chinese or Japanese Woongi books.

순서	서명	저자	출판지 및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오운육기학 해설	權依經 ; 李民聽 [共]編著 김은하 ; 權寧奎 [공]옮김	서울. 법인문화사	1996	
2	中醫運氣學	楊力著, 박현국, 김기욱 문제곤 譯	서울. 法印文化社	2000	
3	운기학설	임응추 지음, 이재석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4	懸吐注解素問入式	劉溫舒著, 윤창열, 박	대전. 한국한의학연	2007	이 책은 유은서가 지은

	運氣論奧	상영 역	구원		소문입식운기론오와 위의 주석서인 日人 岡本爲竹의 運氣論奧診解를 함께 번역한 것이다.
--	------	------	----	--	--

4) 上記 이외의 運氣學 서적

Table 4. Other books of Woongihak.

순서	서명	저자	출판지 및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運氣發病隨症藥方要	申雄 著, 洪松齋序	大田. 大韓傷痍勇士會忠南支部	1956	
2	醫學運氣(抄)全				국립중앙도서관
3	運氣通編				국립중앙도서관
4	運氣新編				국립중앙도서관
5	五運六氣論	李在陽			국립중앙도서관
6	運氣篇				국립중앙도서관
7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				국립중앙도서관
8	五運六氣에 依한 藏腑和劑集	曹祐鉉編	辛亥三月		국립중앙도서관
9	運氣論概要	崔虎錫 等著	서울. 杏林書院	1971	
10	運氣臟腑速見法	大韓運氣學會 編	서울. 杏林書院	1972	
11	運氣學	金壽龍	서울. 醫道韓國社	1976	
12	運氣論概要	東醫運氣學會 編	서울. 杏林書院	1979	
13	五運六氣學 : 理論과 實際	白南喆 著	서울. 翰林醫學社	1979	
14	運氣體質解說集	柳泰佑 著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80	
15	運氣體質早見集	柳泰佑 著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80	
16	五運六氣(運氣論)	白熙洙 著	서울. 東洋醫學綜合센터	1983	
17	運氣와 脈診과 治療	白熙洙 著	서울. 고려의학	1993	
18	命理學과 五運六氣論	조영수 著	서울. 明文堂	1994	
19	人體疾病分類 及 處方集 : 알기 쉬운 五運六氣 보는 법	申完均 編著	서울. 海誠社	1994	
20	21세기 運氣萬歲曆	김장환 편저	천안. 자연과사람	2002	
21	內經 經絡治療學 : 運氣通合昇降針法	宣在光 編著	서울. 한석	2002	
22	運氣體質學輯要	姜鎭春 著	서울. 도림출판사	2004	
23	5계절 5체질 건강법 : 출생일로 쉽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太陽運氣체질	김봉규 지음	서울. 동아일보사	2006	

24	翰書運氣總論	具翰書 著	서울. 한서출판사	2006	
25	體質韓醫學 : 運氣에 의한 四象 五行	吉京柱 著	서울. 예일출판사	2006	
26	五運六氣鍼法. 鍼灸醫 術 宗主國인 韓國의 鍼法	徐廷根 著	서울. 대중출판	2008	
27	五運六氣學의 再照明 : 健康과 人生의 미래 예측시스템	김용률 著	대전. 다래헌	2013	

6. 結 論

韓國의 運氣學에 關하여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려 시대 때 醫師를 培養하는 教育機關을 설치하여 『素問』을 爲始한 여러 醫經을 教科로 사용하였고, 醫師取才考試에서 『素問經』을 首位에 두었으며 또한 運氣를 중시한 宋나라와의 빈번한 交流를 통해 고려에 運氣관련 서적이 들어오고 運氣學說이 流行하였으리라 추측되나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2. 조선시대 전기에 『醫方類聚』가 간행되고 이 중 『傷寒直格』, 『三因方』, 『陰證略例』를 인용한 부분에서 運氣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三因方』에서 제시한 10天干에 따른 10개의 처방과 三陰三陽이 司天했을 때 活用하는 6개의 처방은 이후 『東醫寶鑑』과 『草窓訣』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乙亥字本으로 『素問入式運氣論奧』가 간행되어 조선 전기의 運氣학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3. 조선시대 중기에는 許浚이 지은 『東醫寶鑑』雜病篇 속에 「天地運氣」條를 두어 運氣의 이론과 임상을 소개하였는데 이론은 주로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인용하였고 처방은 『三因方』의 16개의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許浚이 지은 『新纂辟瘟方』과 『辟疫神方』에는 전염병의 유행이 火運과 子午少陰君火司天, 寅申少陽相火司天和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조선시대 후기 尹東理는 『草窓訣』을 지어 한국의

運氣學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 그가 제시한 五運合紀 이론은 그의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이론으로 중국과 일본의 運氣학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다.

5. 조선시대 후기에는 의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들도 運氣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조는 홍역이 유행할 때 이것이 運氣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사들 중에서도 運氣學의으로 이에 대한 처방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처방을 찾아서 올리라고 지시하고 있다.
6. 일제 강점기 시대 때 金海秀는 『圖解運氣學講義錄』을 출판하였으나 『素問入式運氣論奧』의 내용을 번역 출판한 것이라 독창성이 결여 되어 있고, 趙元熙는 『五運六氣醫學寶鑑』을 출판하여 후세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入胎日 또는 出生日의 客運, 客氣를 중심으로 720개의 기본 처방(중복 존재)을 제시하였는데 활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愛用하고 있다.
7. 해방 이후 다양한 종류의 運氣학 서적이 간행되었다. 저자는 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오운육기 의학보감』類에 속하는 運氣 서적 19종, 『황제내경운기편』을 해설한 서적 5종, 중국 또는 일본의 運氣서적을 번역한 서적 4종, 상기 이외의 運氣 서적 27종 등 모두 55종의 運氣서적을 소개하였으나 빠진 것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8. 한국 運氣학의 특징은 『초창결』과 『五運六氣醫學寶鑑』으로 귀결할 수 있는데 환자의 생년월일을 통해 환자의 運氣 체질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用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5R1D1A3A01018249).

References

1. Kim DJ. The Korean Medical History. Seoul. Tamgudang. 1975.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2. Kim SG ed.. An Outline of Korea Medical (38). Seoul. Yeogangpublisher. 199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驪江出版社. 1994.
3. Kim HS. Lectures on Diagram of Woongihak. Gyeongseong. Choseon Christianity Changmunsa. 1928.
金海秀. 圖解運氣學講義錄. 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4. Ryu HY, Maeng UJ, Shin MG. Biographical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Euseongdang publishing Co. 1991.
류희영, 맹웅재, 신민교.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1.
5. Park IS ed.. Chochangkyeul. Seoul. Hanseongpublisher. 1980.
朴寅商 繪.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6. Park HP ed.. Japanese occupation General Catalogue of a herb doctor 2.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7.
박훈평 편저.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2. 대전. 한의학연구원. 2017.
7. Sam MY. History of Korean Medicine and of Diseases in Korea. Japan. Bu Sajeongpan printing Co. 196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日本.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8. Order King Sejong to write. Uibangyuchwi (3). Seoul. Yeogangpublisher. 1994.
世宗命撰. 醫方類聚(3). 서울. 驪江出版社. 1994. 9.
9. Order King Sejong to write. Uibangyuchwi (4). Seoul. Yeogangpublisher. 1994.
世宗命撰. 醫方類聚(4). 서울. 驪江出版社. 1994.
10. Order King Sejong to write. Uibangyuchwi (5). Seoul. Yeogangpublisher. 1994.
世宗命撰. 醫方類聚(5). 서울. 驪江出版社. 1994.
11. Ri BD ed.. Samguksagi(ha). Seoul. Eulyoo Publishing Co. 1985.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下). 서울. 乙酉文化社. 1985.
12. Annals of Chosun-Dynasty. [cited 2017 Jun 29]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004022_002
조선왕조실록 [검색일자 2017.06.29]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004022_002